

인 사 말

종단쇄신위원회 활동에 큰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원로회의 의장이신 밀운 대종사를 비롯한 원로의원 큰스님, 선교율 분야의 대덕스님, 교구본사 주지스님, 중앙종회 의원스님, 집행부 스님, 비구니 스님, 재가단체 및 시민단체 대표분들이 그동안에 해주신 근년에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종단 쇄신을 위해 꼬박 1년을 진력해 주신 것에 대해 종단을 대표해 큰 거듭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종단쇄신위원의 헌신으로 우리 종단은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고 만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단쇄신위원회의 활동은 앞으로 종단의 역사에서 소중한 의미로 아로새겨질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 우리는 아주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가 다통과 분쟁으로 흐르지 않고 쇄신이라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종단쇄신위원회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종단쇄신위원회로 인해 우리는 종단의 위기를 쇄신의 기회로 만드는 전화위복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종단쇄신위원회는 1년이라는 짧은 활동기간에도 불구하고 대비원력의 발심과 실천을 위한 청구 제정, 산중총회법, 총림법, 총무원장 선출제도, 호법제도, 중앙종회의원 선거제도, 교구종회, 승가복지제도, 중앙종무기관, 법계직무제도 쇄신안 등 10개의 쇄신안을 제시하면서 종단 사상 전례가 없는 활동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10개의 쇄신안은 한국불교가 발전하고, 사회와 역사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금과옥조들입니다.

쇄신안의 어떤 것은 중앙종회를 통해 종법에 반영될 것이고 어떤 것은

집행부의 제도개선과 행정조치로 시행해야 할 것들입니다. 종단 집행부는 종단쇄신위원회가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만든 쇄신안이 종단 행정과 제도에 충실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단쇄신위원회의 활동은 이렇게 회향되지만, 회향의 결실을 다시 씨앗으로 삼아 쇄신을 위한 종단의 노력은 앞으로도 중단 없이 계속 될 것입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법체 청안을 기원합니다.

불기2557년 6월21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